

목회를 향한 열정,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 앤디 스탠리/ 미국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교회 목사

비전은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저절로 모아지지 않는다. 비전은 새어나간다. 여러분이 교인들 앞에서 비전을 백번 외쳤다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반복해서 말하지 않아도 다 듣고 있고, 교회가 원지 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세 가지를 들으면 비전이 새어나가는 틈새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기도 요청: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비전과 교회의 우선순위에 속해 있는지를 알게 된다. 교회 리더모임에서 병석에 있는 교우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이 반문한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이웃이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없나요? 그렇다면 아픈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 기도할 제목의 뭐죠?”

둘째, 삶 속의 놀라운 간증들: 우리의 생활 속에 간증이 없다면, 아마 우리 삶의 변화를 위한 비전이 소멸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셋째, 불평거리들: 사람들의 사소한 불평을 통해 비전은 소멸된다. 교회 음악이나 주차 때문에, 교회가 커져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불평할 때 비전은 소멸된다. “어려운 건 다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잖아요”라고 나는 대답하지만 비전이 새어나가는 신호이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는 가끔 비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극도의 좌절에 빠지는 시험을 받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나 자신에게 중요한 질문들을 던진다. 조직체로서 우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비전을 갖도록, 그리고 그 비전이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비전이 상대방을 압도하는 가운데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핵심을 잃고 산만한 활동만이 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당신이 인도하는 조직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는 목적을 향해 모든 사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이 비전을 소멸되게 하는가

비전이 소멸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곧 성공과 실패, 그리고 그 사이의 모든 것이다. 성공은 배가 되는 것을 말한다. 규모가 커질수록 복잡해지고, 조직이 복잡해지면 비전의 혼동이 야기된다. 우리가 6명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 가정교회를 시작했을 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모든 사안을 이해하는 가운데 매우 효율적으로 움직였다. 지금까지 내가 있어 본 가장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모습이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성장하고 이에 따라 새로운 조직들이 생겨나면서 효율성과 비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많은 교회들이 바쁘게 움직이면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이들은 비전과의 거리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이를 방지한다면, 실패의 그림자는 이미 우리의 발밑에 와 있게 된다. 계획과 전략이 실패했을 때 사람들을 비전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가 쉽다. 계획과 전략은 언제든지 바뀌고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비전은 시간이 흐를수록 정화될 뿐 변하지

나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 교회의 첫 번째 모금 계획은 완벽한 실패였다. 필요한 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계획을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부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어떻게 일이 잘 진행되나요?”라고 물었다. 그때 나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 부인은 “이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라고 반문했다. 그 부인의 의도는 계획이 실패했다면 비전이 이 교회에 맞지 않다고 말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비전이 옳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최악의 모금 계획을 세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비전을 바꿀 필요는 없다.

비전을 소멸시키는 또 다른 장애는 무엇일까? 인생이다. 매일 하루하루 나의 삶은 내 안에 있는 비전과는 반대방향으로 나간다. 비전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성의 문제다. 반면 인생은 지금 이순간의 문제다. 내가 돌봐야 할 아이들과 집, 밀려있는 빨래, 다음 주까지 지불해야 하는 공과금과 카드 청구서가 나의 삶이다. 월요일이 되면 주일에 가졌던 비전은 산산조각이 난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만 하는 삶의 문제들이 비전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 교회 안에서 계획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 역시 교회의 목표를 흐리게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계획에 앞서 다음의 질문들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즉 이 프로그램이 성숙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프로그램인가? 삶의 성숙과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비전을 소멸시키는 경우가 많다. **비전을 붙잡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반복하라

비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다. 나는 매년 1월에 비전을 주제로 설교하는데, 같은 메시지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가능하면 지난해의 원고를 보지 않는다. 일방적인 설교가 아닌 상호 의사소통을 위해 나는 신선하고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비전을 세우기 위해서는 반복에 반복을 통해 거듭나야 한다.

2. 기회를 놓치지 마라

비전을 세울 때는 전략적이어야 한다. 연휴가 끼어있는 주말은 당연히 피하는 게 좋다. 매년 1월마다 우리 교회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 2, 3주에 걸쳐 살핀다. 학교가 방학을 시작하기 전인, 5월과 6월에는 3주간동안 ‘전략적인 예배’를 드린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비전을 세우고, 이들에게 우리의 사명과 비전, 가치관을 설명하고 오는 가을에 시작될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다음 학기에 수고할 지도자를 세우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3. 전략을 세워라

공식모임에서든, 리더 재교육에서든 교회 사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언제나 비전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식지의 모든 내용은 비전과 관계되도록 하는 것이다. 나는 주일 설교를 통해 말할 수 있는 헌신적인 내용을 소식지에 기록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되새겨주는 글들만 올린다. 우리가 비전을 말할 때는 듣는 사람에게 명료하고 강력하게 전해야 한다.

비전을 강력하게 하는 3가지 요소는 다음 같다.

첫째, 문제를 정의하라. 조직 안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이다. 비전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교회의 존재 목적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해결하도록 하신 문제가 무엇인가?

둘째, 해결책을 제시하라. 당신의 비전이 문제의 해결책이다. 사람들 사이의 감정상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았다면 우리는 이미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한발 다가선 것이다. 그들의 관심을 끈 상황에서 우리는 교회 행사의 참여를 위해 약간의 시간과 수고를 요구할 수 있다. 교회에 대한 비전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닌가.

셋째, 긴박한 이유를 제시하라. 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하는지, 왜 지금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유를 답해주어야 한다. 저는 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첫 교회 설립모임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임 장소까지 오기 위해 대략 20여 개의 교회를 거쳐야 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이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왜 또 하나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 지금까지 다른 교회에서 채워지지 못한 필요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는 상실감과 환멸에 빠진 사람들을 하늘 아버지와 연결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필요하다.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등을 돌린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개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의 과거 경험이다. 우리의 비전은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떠난 친구들을 다시 교회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안전하고 적절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사역의 현재성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느슨한 기대보다는 잃은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역의 긴박성에 기인한다.

나는 교회 개척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저 친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해낼 거야”라고 말할 만큼 명백하게 대답해야 했다. 질문들에 대한 명백한 대답은 사람들 안의 생동감으로 돌아오고, 함께 나눈 비전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재능, 물질을 헌신하게 한다. 교인들 앞에서 반복해서 외칠 구절이 있다면, 설교 강대상뿐 아니라 점심을 먹는 밥상에서도 외쳐야 할 것이다. 비전을 세우는 사역에는 현장의 구별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교회 안의 공동체, 그리고 외부 사람들에게 대한 영향력을 추구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숙한 관계로 인도하는 것이다.

비전을 기념하는 방법을 배우라

많은 교회들이 많은 기념행사를 하지만 비전을 증대시키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 기념행사는 비전을 싸는 껍질과도 같다. 나는 한 교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지난 주일 소그룹 리더가 어린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을 듣고 저는 제 아들이 속한 소그룹의 리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어 메일을 씁니다. 제 아들은 5학년이고 그 아이의 그룹리더는 그렉입니다. 그렉은 얼마 전 군인으로서는 이라크전에 참전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터키를 거쳐 항공모함에서도 근무했던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렉은 자기 그룹

에 속한 아이들을 잊지 않고 터키에서 이메일을 보내 아이들의 안부를 묻고 지금 이라크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지 설명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터키에서 전화를 걸어 제 아이와 직접 대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까? 그 영향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전쟁터를 오가면서도 자신의 그룹 아이들을 챙기는 청년의 모습에서 나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다. ‘과연 나는 이메일을 통해 얼마나 영향을 미쳤던가?’

전략적 주일 예배에서 나는 지역교회를 섬기는 방법과 참여의 기회에 대해 설교했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3주간의 전략적 예배를 통해 다음 가을학기에 성길 스텝들로 세울 자원봉사자들을 설득하고 또 등록시킨다. 그 예배 시간에 나는 “한 자원봉사자의 이메일을 읽겠습니다”라고 회중들에게 말했다. 때마침 그렉은 휴가차 집으로 돌아와서 군복을 입고 앞에서 세 번째 줄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에 관한 이메일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그렉을 회중에게 소개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박수로 격려했고 예배 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 신청했다. 승리를 기념하는 것보다 더 비전을 잘 표현하는 것은 없다.

세례 예식은 비전을 기념하는 또 하나의 기회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신앙고백 외에 또 하나의 간증이 필요하다. 온 교인들과 더불어 세례 직전, 예배시간에 볼 수 있도록 2-3분 정도의 간증을 비디오로 촬영한다. 모든 회중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도록 격려한다. 간증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다.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이 교회로 초청했고, 여기서 주님을 만나 지금은 소그룹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간증을 마친 후, 세례를 받을 때 소그룹 멤버들은 주위에 서서 세례 받는 사람을 격려하게 된다. 이 예식을 통해 비전은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된다. 나는 거의 매주 외치고, 환호하며 예배를 경축하는 순서를 갖는다. 1년에 한 번은 충분하지 않다. 자발적인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거듭해 우리의 비전을 기념해야 한다.

비전을 가지고 사는 법을 배워라

한 조직의 비전을 생활 속에 구현하려는 의지는 지도자의 신뢰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목회자가 자신의 생활 속에도 구현되지 않은 비전을 이야기한다면, 회중들이 먼저 그 사실을 알아챌 것이다.

나와 아내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하기로 헌신했다. 11살인 큰아들 앤드류가 지난 봄에 야구팀의 최우수선수 중 한 명으로 뽑히게 되자, 나는 이 지역 야구팀을 우리 사역에 새로운 표적으로 삼고, 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팀에 속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와 함께 개인적인 연락을 시작했다. 그러나 야구 시즌 내내 앤드류는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 가끔 우익수로 경기에 나오기는 했지만 앤드류는 주로 벤치를 지켜야 했다. 코치와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없이 자주 경기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 많이 힘들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팀이 지역 예선리그에서 결승전에 진출하는 데 충분한 승수를 올리고, 그 후 잔여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이미 결승 진출이 결정된 뒤라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기였지만 앤드류는 여전히 벤치에서 몸을 풀고 있었다. 결국 코치는 앤드류를 우익수로 경기에 내 보냈다. 그러나 앤드류가 타석에 들어설 때가 되자 코치는 앤드류를 빼고 다른 선수를 투입했다. 헬멧

을 들고 힘없이 벤치로 돌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 내 안에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울분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경기장을 빠져나와 밖에서 서성이는데 어디선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낯선 목소리에 몸을 돌리는 순간, ‘무얼 생각하고 있는거야, 지금 내 감정에 빠져 있잖아, 야구 경기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니 지금 감독에게 어떻게 따질 것만 생각하고...’라는 생각에 스스로 당황하게 되었다.

“앤디,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당황한 나에게 다가서서 그는 이렇게 말을 시작했다. “내가 30년 넘게 교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내 아내가 자네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더니, 나를 전도하기 시작하더군요.” 그 친구가 말을 잇는 동안 나는 ‘오, 주님! 내가 아들 때문에, 이번 경기가 마지막 경기가 될지도 모르는 내 아들 때문에 이렇게 흥분하고, 최우수 선수로 뽑힌 그를 함부로 대하는 코치에게는 화를 참지 못하면서, 30년 넘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친구에게는 관심도 없었군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야구 경기는 끝나고, 그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서 느낀 점과 소그룹 성경공부, 그리고 삶의 변화들에 대해서 나누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마음 한편으로는 기뻐지만, 아직도 코치에 대한 분한 생각 때문에 친구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시는 듯한 느낌과 함께 ‘네가 왜 여기 있는지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고 다시 기억하라’는 음성이 들렸다.

경기가 끝난 후 양쪽 팀의 선수들 모두 아이스크림 가게에 모였다. 가게 안을 서성이며 나는 속으로 ‘안돼, 나는 코치를 용서할 수 없어’라고 생각했다. 팀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 나머지 가족들이 한 차에 탈 수 있었다. 9살짜리 작은 아들이 아직 분이 풀리지 않은 나의 마음을 아는 듯, “코치가 어떻게 그럴 수 있지”라고 말을 꺼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고함을 지를 뻔 했다. 그러나 ‘기억하라’는 주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바꾸어 놓았다. “이번 봄에 우리가 경기장에 오는 건 꼭 야구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니? 앤드류는 이번 기회로 새로운 교훈을 얻었으리라 생각한다. 야구 경기장에서 우리가 시작한 일은 야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가 가족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오래지 않아 한 코치의 가족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시즌이 마친 후 코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인 모임에서 앤드류의 태도를 칭찬하며 다른 선수들의 모범이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만약 분노를 참지 못해 코치에게 항의를 했었다라면..’라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하기까지 하다.

인생은 비전을 품고 살기에 너무나 가혹하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우리는 모든 비전을 상실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인생의 여정을 통해 비전을 내 중심에 둘 수 있다면, 교인들도 역시 그렇게 할 수 있다.

* 출처 : 이 글은 “신학이 있는 목회, 목회를 위한 신학”을 지향하는 목회전문월간지 [목회와신학] 2004년 3월호(통권 177호) 258-262페이지에 실린 것으로 [목회와신학]의 허락을 받아 사용합니다(<http://www.durano.com/moksin>).